

# 海外業界動向

## 벨 아틀랜틱, 델라웨어 주에 광통신망 구축 계획

미국의 벨 아틀랜틱 사는 2억 5000만달러를 투자하여 델라웨어 주에 광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벨 아틀랜틱은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대화형 멀티미디어 홈쇼핑 서비스가 가능함은 물론 주내 학교, 병원, 공공기관을 연결하며 다른 유용한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벨 아틀랜틱 측은 이 통신망의 구축이 지난해 통과한 델라웨어 통신기술 투자법에 따른 것이며 오는 2000년까지 주내 800만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IBM, OEM용 16비트 MCU 발매

미국 IBM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부문은 OEM 용으로 42MHz라는 고속으로 동작하는 16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MC19620을 발표했다. 양산출하는 4사분기부터인데 1만개 구입시 1개당 25달러이다.

이 컨트롤러는 인텔의 MCS-96 MCU 패밀리와 아키텍처의 호환성이 있는데 최대 32KB의 마스크롬, 1KB의 RAM을 갖고 있으며 어드레스 용량은 1MB이다. 어드레스 전용 버스를 추가한 데이터와의 교체없이 어드레스 버스를 사용할 수 있어 비교적 저속인 외부메모리의 이용도 가능하다.

## 마이크로소프트, 베트남서 PC용 SW 판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태국 현지법인 마이크로소프트 태일랜드(방콕)는 베트남에서 6월까지 퍼스컴용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하노이에 본사를 둔 컨설턴트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의 판매, 서포트 체제를 펴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미 컴퓨터메이커가 잇달아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데 앞으로 소프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태일랜드가 판매계약을 체결한 곳은 테크놀로지 디벨로프먼트 앤드 트레이딩 사(TDT)이다.

## 인텔과 벨, 퍼스컴 TV회의에서 제휴

미국의 인텔과 캘리포니아 주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전화회사인 퍼시픽 벨 사는 데스크톱형 퍼스컴에 의한 비디오 회의 보급에 대해 제휴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양사의 제휴는 이런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텔은 1월에 이 회의 시스템인 프로세서 비디오시스템 200을 발매한 바 있으며 퍼시픽 벨 사는 동사의 종합 ISDN의 이용계약자 증가를 추진하고 있다. 양사가 조인한 계약에 의하면 퍼시픽 벨 사의 ISDN 이용자는 희망소매가격인 하위기종에서 2,500달러 정도인 인텔의 이 시스템을 동사의 지정 재판매업자를 통해 구입하면 1000달러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닌텐도, 16비트 게임기 중국에서 생산

일본의 닌텐도(임천당)는 5월에 중국에서 주력제품인 16비트 게임기의 생산을 시작한다. 전자부품 메이커 대기업인 일본 미쓰미 전기의 중국공장에 생산을 위탁하는 데 생산위탁 규모는 초기 월간 10만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본계획에 오르면 이 게임기의 생산을 중국에 집약시킬 생각이다. 급속한 엔고와 게임기의 가격경쟁 격화에 대응하는 조치로 이와 함께 중국시장의 개척도 노린다.

생산을 위탁하는 것은 16비트 게임기인 슈퍼패미컴인데 생산위탁 상대가 되는 곳은 미쓰미 전기의 산동성 청도공장이다. 청도공장은 미쓰미 전기가 중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3공장 중에서 최대규모의 공장으로서 종업원 수는 5000명 이상이며 월산 약 20억엔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애플, 팬티엄탑재 저가격 퍼스컴 발매

일본 세이코애플의 퍼스컴 통신판매 자회사인 애플다이렉트는 인텔의 고성능 프로세서인 팬티엄을 탑재한 저가격 퍼스컴을 발표했다. HDD가 없는 보급모델은 29만 8000엔이 되어 처음으로 30만엔을 밑돌게 되는데 팬티엄 탑재 퍼스컴은 이제까지 비즈니스용이 중심이었지만 가격을 크게 낮춰 개인유저에게도 보급을 도모한다.

발매하는 퍼스컴인 AT5000은 OS에 DOS/V를 채용한 IBM 호환기인데 메모리는 표준 8MB 내장이며 최대 64MB까지 확장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고속 32비트 버스인 PCI버스에 대응한다. 내장된 HDD의 용량은 170MB부터 1GB까지이며 HDD를 내장한 기종에는 DOS/V와 윈도우즈 3.1이 사전에 인스톨 되어있다.

소니, 프로젝터용 고정세 LCD 개발

일본의 소니는 1.35인치형으로 화소수 51만 5000의 고정세 폴리실리콘 TFT를 개발하여 8월부터 샘플 출하를 시작한다. 화면비율 16:9와 4:3의 표시교체가 가능하고 상하좌우의 표시 반전기능도 내장되어 있는데 액정 프로젝터나 뷰파인더용으로 공급한다. 모노크롬과 컬러의 2기종이 있으며 가격은 각각 11만엔과 13만엔이다.

종래 액정프로젝터용 아몰포스 실리콘 TFT 방식 LCD에서는 패널사이즈 3형에서 3.6형까지, 화소수 11만에서 30만 5000이 한계였는데 소니에서는 폴리실리콘을 채용하여 구동회로를 칩 온 글래스(COG) 방식으로 패널에 내장함으로써 모듈의 소형화와 고정세화를 실현하였다.

파이오니아, 대용량 CD체인저 발매

일본의 파이오니아는 CD를 파일 감각으로 수납하여 듣고싶은 곡과 디스크를 바꿔 끼우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대용량 가정용 CD 체인저를 개발하여 50매+1매 체인저를 탑재한 미니미니컴포넌트인 셀피-BAN K K-B501(가격 12만 9800엔)과 단품 50매+1매 CD 체인저인 PD-F51(가격 6만엔), 100매 CD 체인저인 동F100(가격 8만엔)을 5월 하순부터 각각 발매한다.

금번 개발한 CD 체인저는 디스크를 수직으로 수납하는 25매 롤링그락을 2개나 4개 내장하고 있어 재생시 디스크가 그대로 안으로 이동하여 자주식 픽업이 신호를 읽어들인다. 12cm, 8cm의 양 CD에 대응하며 연주하지 않은 CD를 포함하지 않은 롤링그락 부분의 CD는 교환할 수 있다. 연주 중인 CD는 부속된 라이너로트 파일을 이용하여 번호로 검색하는 방법 외에 각 디스크에 대해 8문자까지 등록가능한 알파벳이나 숫자로 불러낼 수 있다.

### 마쓰시다, 멀티 LD플레이어 발매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산업은 15일 가라오케 대응 멀티 LD플레이어인 LX-K770(가격 11만 5000엔)과 CD-G 가라오케 시스템인 LX-G7(가격 54,800엔)을 6월 1일부터 발매한다고 발표했다. K770은 타사에 없는 가라오케 기능을 가져 호평을 받은 K750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켰으며 G7은 동사에서는 최초의 CD-G 가라오케 전용기가 된다. 월산은 모두 3000대이다.

K770은 현행 K750과 같이 레슨 기능, 즐거운 키컨트롤 기능이 최대 특징인데 레슨 기능은 종래의 기능에 추가하여 화면 위 가사의 시작에 맞춰 음정 판정라인 위에 가사를 바로 표시하여 음정이 벗어난 부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판정레벨을 2단에서 3단으로 늘렸다. 또한 계속 노래를 잘 부르면 [좋아요, 훌륭해요]라는 문자가 표시된다.

### 필립스, 일본의 퍼스컴 시장 재진출

유럽 최대의 가전메이커 필립스가 PC 분야에서 가전 디스카운터인 스태프와 제휴, 일본 시장에 다시 참여키로 했다. 필립스 제품 PC의 일본에서의 독점 판매권을 스태프사에 공여하기 합의, 가까운 시일 안에 정식 체결할 예정이다.

대만 법인이 제조하는 저가격의 PC를 일본 관련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스태프사에 공급하기로 했다. 동사는 지난해 일본 법인을 통해 PC 시장에서의 참여를 시도했으나 판매루트를 확보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다. 판매제품은 대만 필립스(타이페이)가 제조하는 [PHILIPS] 브랜드의 DOS/V(IBM호환) PC이다.

### 토슨, 유럽/아시아서 대화형 위성방송 계획

프랑스의 가전업체 토슨 컨슈머 일렉트로닉스(TCE)사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대화형 디지털 위성TV 방송을 추진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TCE 사는 지난 2월 발표한 디지털 위성TV 방송수신기 및 디코더인 'DSS(디지털 새털라이트 시스템)'에 양방향기능을 추가해 위성을 통한 대화형 디지털TV 방송 및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던텔레콤, 콜롬비아 통신시장 참가

캐나다의 노던텔레콤사는 남미의 콜롬비아 국영 전화공사의 통신 근대화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기기공급, 프로젝트 관리와 동시에 수익 분배 방식으로 위험도 함께 하는데 동사의 중남미 통신프로젝트에서 이런 방식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콜롬비아 10개 지방, 92개 자치단체에 3년 동안 디지털 전화용 20만 5000 회선을 설치함과 동시에 디지털 무선시스템, 통신설비 등의 근대화를 하는 것인데 노던텔레콤은 이 공사와의 합의에서 9년간에 걸쳐 양도하며 네트워크 관리에서 협력을 하기로 되어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 간사는 콜롬비아의 투자은행인 베스트콜 파트너즈 그룹인데 노던텔레콤은 이 프로젝트에서 3억 5000만 US 달러의 매상고를 9년 동안 예상한다고 말하였다.

### 스페인, 전자산업 침체 속 통신기기사업 활기

스페인의 전자산업이 전반적인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통신기기산업만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공 마드리드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스페인의 전자산업은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11% 축소됐으나 통신기기 분야의 경우는 생산, 수입,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한해 동안 스페인 통신기기산업 분야는 수입규모가 33%나 늘어나면서 시장규모는 전년에 비해 8% 늘어난 2,581억페세타 정도로 확대됐다. 지난 '92년 통신기기 생산이 21%나 감소, 급격한 시장위축에 따른 우려들이 있었으나 이로써 다시 성장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지난 해 스페인 전자산업 전체의 시장규모는 총 1조 1000억페세타 정도로 지난 '91년 이래 연 3년째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스페인 시장에서 소비재 전자제품은 금액기준 생산과 수입이 각각 10%와 11%로 줄어들었다. 전체시장 규모도 1,590억페세타 정도에 머물러 가장 부진했던 분야로 기록됐다. 전문 전자제품에서도 방송용 장비 및 산업용 전자, 악기류, 전자 방위산업기기, 계측장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수입감소와 시장규모 축소를 경험했다. 시장규모 축소폭은 전년대비 17%에 달했는데 다만 전자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31%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해 국내 생산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전국적인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계획

중국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2개의 전국적인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기전 체신부 장관은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설립여부는 정보네트워크의 정비에 달려 있다고 전제한 뒤 중국은 사실상 2개의 정보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중이라며 이들은 데이터 네트워크와 정보전달 네트워크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지난 3월 첫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을 완성했는데 이는 축적한 정보를 최종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두번째 정보네트워크는 국가소유의 통신시설을 통해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번째 정보네트워크는 오는 7월 초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 장관은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급증하는 통신시스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해제할 것인지, 또 이런 정보네트워크의 시용자와 사용목적과 관련된 최근의 규제를 풀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 베트남, 컴퓨터 제조산업 적극 육성키로

베트남은 가격하락과 경쟁격화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제조산업을 육성키로 했다고 주간 베트남 투자 리뷰(VIR)가 보도했다. 과학기술 환경부(MOSTE)의 트란 반 덕 기술 국장은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이 해외투자를 유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숙련노동자가 크게 부족하고 기술수준이 낮아 컴퓨터 산업 육성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인도, TV 등의 수입을 허가

아시아 월스트리 저널에 의하면 인도의 무가지 상업 장관은 3월 31일의 기자회견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제한되고 있던 내구소비재 등의 수입을 4월 1일부터 대규모 수출업자에게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상이 되는 것은 TV, 오디오/비디오 기기와 기타 가전제품, 스포츠 용품, 휴대전화기기, 일부 사무용품 등으로 이제까지는 개인이 수화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것만 인정이 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업자에게 특별 수입라이센스를 발행하여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인정한다. 또한 보통보다 낮은 관세로 금과 은도 수입할 수 있다고 한다.

### 싱가폴텔레콤, 위성통신이용 서비스 개시

싱가폴 텔레콤이 위성을 경유한 이동체통신

서비스를 시작했다. 태평양 상공에 있는 임마세트의 상업용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전화, 팩시밀리의 통신을 하는데 데이터 통신도 금년 중 실시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임마세트M이라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으로 송수신 설비의 무게는 9kg인데 현행 아나로그 식 임마세트A에 비해 휴대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요트 등 작은 교통수단에도 장착하기 쉬워진다.

송수신설비의 가격은 25,000US달러로 아나로그 식보다 30% 저렴해지는 외에 통신 코스트도 1분간 5.5US달러로 아나로그 식의 평균 8.75달러에 비해 저렴해지는데 싱가포르 텔레콤은 싱가포르 샌트서 섬의 지상통신기지에 임마세트M과 연결되는 신호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 Motorola, 1.8V 전원용 6811C05 8-bit Microcontroller 발표

CSIC(사용자 주문형 IC) Microcontroller Division은 1.8V Vdd에서 500KHz 주파수로 동작할 수 있는 7가지의 68HC05 Microcontroller를 발표했다. 이같은 새로운 저전압 제품은, 기존의 동일한 3V 전압용과 비교해 1/3 이상의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으므로, 어떠한 휴대용 전자제품 개발에도 적용가능하다. 이 새로운 제품은 68HCL05라 불리고, Motorola 6805 체계는 1980년 부터 3V 전원동작이 가능하였지만, 휴대용전자 제품의 경박단소화 경향에 맞춰 건전지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저전력 소모기술을 이용해 68HCL05 제품군을 설계하였다.

Computer 주변기기인 Mouse를 무선화한 Logitech사의 MouseMan은 4개 Channel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Mouse는 Alkaline 건전지 수명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1.8V 68HCL05JIA를 채택했다.

### 모토로라, 내셔널 및 도시바 공동으로 산업용 저전압 CMOS

캘리포니아의 산타 클라라에서 1994년 4월 25일 모토로라, 내셔널 반도체 및 도시바는 5볼트 입/출력 허용오차를 가진 3볼트 전용 CMOS 로직 계열을 최초로 발표했다. LCX 저전압 CMOS 계열은 3볼트/5볼트로 혼용하여 설계된 시스템에 대하여 5볼트 허용 오차 한도를 제공함으로써 3.3볼트 시스템으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 혼용된 전압 시스템에서 상호작동성에 대하여 빠르고 유연한 해결책을 제공키 위해 모토로라, 내셔널 및 도시바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토로라 내셔널, 및 도시바가 LCX 계열은 모두 기능적으로나 핀과 핀의 호환성을 갖고 같은 기능의 반도체와 그대로 교체가 가능하다.

고속, 저전력 LCX 소자들은 통신과 워크스테이션 제품 및 과 저전력 소비의 휴대용 응용 제품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 계열의 특징은 성능의 감쇄없이 같은 설계상에서 3볼트와 5볼트 양쪽이나 3볼트 전용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 “영 GPS사, 미 DSP사와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라이선스 협약”

GPS사는 지난 4월, 미국 DSP 그룹과 통신 및 컴퓨터 분야의 첨단 기술인 Pine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라이선스 계약은 GPS사가 DSP그룹의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Pine DSP core와 관련 기술, 개발 예정 디자인 등을 일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이에따라 GPS사는 자사의 통신 및 컴퓨터용 반도체 생산에 획기적인 성능 향상이 이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DSP core는 GPS사의 전략 제품인 주

문형 반도체(ASIC) ARM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통신 및 미디어, 컴퓨터 제품의 성능 향상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GPS측은 전망하고 있다.

또한 Pine DSP core는 최근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동통신 분야의 핵심적인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의 하나로, 개인 휴대 통신(PCS)기기의 개발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뿐 아니라, 음성 저장, 가격, 전력 사용 면에서 매우 유리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 US웨스트, 불가리아 이동통신시장 차명

미국의 US웨스트사가 불가리아 이동통신시장에도 진입하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유럽이 이 회사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US웨스트사는 불가리아의 제2이동통신 시스템 구축에 1,5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불가리아정부는 도이체 분테스포트 텔레콤 등 여타 신청업체들을 물리치고 US웨스트사가 지분참여한 모빌텔사에 제2이동통신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빌텔사는 영국 케이블 앤드 와이어사가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제1이동통신 모비폰사와 경쟁을 벌이게 됐다.

모빌텔에서 US웨스트가 차지한 지분은 25%에 불과하나 동사가 동유럽 모빌폰시장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서방에서 가장 큰 편이다. 현재 동사는 러시아내 14개 도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지에서 운영되는 모빌폰 프랜차이즈시스템에 지분참여하고 있다.

### 미국, 환경관련 국제정보통신망 구축 나서

글로벌(GLOBE)계획이라고 명명된 이 사업은 각국의 학생, 교사들이 강우량, 기후, 철새이동, 각 지역의 자연 등 환경관련 정보를 관

측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컴퓨터 온라인 통신망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환경정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글로벌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일본, 독일, 러시아, 영국, 호주, 요르단 등 20개국 이상의 정부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실시된다면 우선 세계 약 5백개 학교를 위성회선으로 연결, 환경정보 통신망을 가동하게 되며 이것이 성공하면 내년말까지 1천여개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글로벌계획은 고어 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부터 구상해온 것으로 클린턴 정부가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환경, 정보통신, 교육 등을 정교하게 결합시킨 구상으로 평가된다. 이 계획은 또 순수한 교육적 목적 이외에도 미국의 정보통신산업에 개발목표를 제공하는 산업정책적 성격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텔, 펜티엄칩 판촉 강화

세계최대의 반도체업체인 미국 인텔사는 차세대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펜티엄의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관려 비용으로 1억5천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인텔이 펜티엄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인텔은 대대적인 판매강화에 나섰다라고 최근 보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텔이 이처럼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예상 밖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펜티엄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텔의 야심작인 펜티엄칩은 지난해 봄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50만~60만개 정도가 판매되는데 그쳐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인텔은 올해 안에 펜티엄칩을 350만개 정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텔의 목표치인 6백~7백만개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머무는 수치다.

### 세가와 MGM, 오락미디어에서 제휴

게임기기 대기업인 미국세가사와 영화·오락 대기업인 MGM은 27일 쌍방향 미디어, TV프로그램, 영화 등의 개발, 제작, 판매에서 광범위한 제휴를 한다고 발표했다. 첨단사업에 대한 공동투자도 하는데 이제까지 소프트웨어 부문과 기기부문의 부분적인 제휴는 있었지만 아이디어부터 판매까지 일관된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MGM의 최신 스포츠웨어 및 첨단 영상기술과 세가의 게임기기분야 노하우를 일체화시켜 오락용 멀티미디어시장 확대를 노리는 것인데 양사는 연내에 CD-ROM을 이용한 2종류의 쌍방향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제네시스 32비트 카트리지 플레이어와 개발중인 세턴 CD플레이어 등 세가의 콤팩트 디스크기기에 MGM의 소프트웨어 도입을 검토하는 등 95년, 96년 공개예정인 MGM영화를 기본으로 한 홈 비디오게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후지쯔, 21형 프라즈마디스플레이 증산

일본의 후지쯔는 21형 컬러 프라즈마 디스플레이에서 금년도 6천대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후지쯔제너럴이 이 패널을 이용한 표시장치인 프라즈마비전 M-21을 판매하고 있는데 공중표시, 교통, 제조현장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다양한 용도개척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후지쯔에서는 대형화, 발광효율 개선으로 컬러 프라즈마 디스플레이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후지쯔는 21형 컬러 프라즈마 디스플레이를 타사에 앞서 상품화한바 있는데 다른 프랫패널 디스플레이(FPD)에 비해 대형화가 용이하고 자발광으로 밝으며 시야각도가 넓다

는 특징을 살려 새로운 용도개척을 추진해 왔다. 특히 후지쯔제너럴은 이 패널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상품화하여 1,000건 이상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전개해왔다.

### 산요, AV기기용 다기능 전원 발매

일본의 산요기기는 AV기기용의 다기능 레귤레이터IC로써 세트의 코스트다운과 전원회로설계 표준화에 공헌하는 TV/VTR용 다기능 전원인 LA5611, BS/CS내장 TV/VTR용 전원인 동 5612의 2기종을 5월부터 샘플출하한다고 발표했다.

다기능 전원시리즈인 5611은 출력전압 5.05V의 ON/OFF부착 저포화 레귤레이터 2계통, 1차원의 스위칭 레귤레이터 컨트롤용 제어앰프를 내장하고 있는데 모든 VTR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로별한 생산체제 전개에 유용하여 전원의 소형화와 고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다. 과열보호와 과전류 보호회로도 내장하고 있다.

### 애플, TV모니터일체형 퍼스컴 발매

미국의 애플컴퓨터는 26일 가정용 TV모니터와 일체화시킨 퍼스컴인 퍼포머570시리즈 3기종을 발표했다. 애플특약점외에 시어즈, 서킷시티, 베스트바이, 잼즈그룹, 굿가이즈, 프라이스클럽 등 대규모 디스카운트 스토어 및 컴퓨터/가전 전문점에서 판매한다.

발표한 것은 퍼포머575, 동577의 3기종인데 CPU에 모토로라의 33MHz 68LC040을 채용하여 동550에 비해 약 2.5배에 고속화를 실현하였다. 14인치 소니제 트리니트론 컬러 CRT디스플레이, 2배속 트레이 로딩방식의 CD-ROM 드라이브, 스테레오 스피커를 일체화시켰다.

NEC, 리어일체형 프로젝터 발매

일본의 NEC는 업계최초로 LCD를 이용한 리어일체형 프로젝터를 제품화하여 5월 1일부터 수주를 시작한다. 131만화소인 4.2형 TFT 방식 LCD를 3매 이용한 풀컬러, 고정세 표시 타입으로 워크스테이션에도 대응하는데 초기에는 감시제어장치의 모니터나 교육, 교육기관, 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용 모니터로써 수요를 전망하고 있다. 가격은 6,100만엔으로 연간 120만대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

이 액정프로젝터 NX5171B의 표시화면은 70인치인데 편광을 조작하여 빛의 이용률을 높은 광학부품의 채용과 화소의 개구율을 35%로 높여 고휘도를 실현했다. 사이즈는 폭 140, 깊이 99, 높이 199cm인데 프로젝터는 3매의 LCD영상을 본체내에서 합성하는 단관식으로 색번짐을 억제하였다. 시야각도는 100도 이상인데 스크린의 피치를 0.42mm로 미세화시켜 액정패널 격자의 중복에 의해 발생하는 간

섭무늬를 방지했으며 렌즈는 휘어짐이 적은 제품을 채용하였다. 퍼스컴, 워크스테이션에 대응하며 컨버터를 매개로 현행 TV방식인 NTSC의 신호표시도 가능하다.

다이야세미컨, SVGA컨트롤러칩 발매

일본의 다이야세미컨 시스템조사는 미국 옵티사의 액정디스플레이용 SVGA컨트롤러칩인 OPTI92C168의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은 1,000개 구입시 3,000엔이다.

신제품은 노트북형 퍼스컴을 타겟으로 한것으로 1,600만색의 표시가 가능하며 초해대 1,024×768화소에 대응하는데 특히 24비트의 오디오 데이터 패스를 내장하고 있어 데이터의 스루풋을 낮추지 않고 스크린 리프레쉬 레이트 및 해상도를 베이스로한 비디오 클럭주파수를 만들어 낸다. 이 때문에 비디오클럭은 640×480화소의 해상도인 경우 24MHz로 동작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안내**

EIAK-NET로 21세기 전자 공업을 준비하십시오.

본회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새롭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종 전자공업통계와 EIAK 정보 등 전자관련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EIAK-NET 가입안내

구분	이용요금	비고
ID 등록비	무료	POS Serve 사용 분당 20원
월사용료	월 1만원	※유료정보는 서비스 별도 부과

**가입문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기획과**  
**TEL : 553-2241/7 (교 : 53)**